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어려움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3월 14일)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열암곡 마애불 입불
韓불교 역량 총집결

조계종, 4월 28일 마애불 입불 천일기도 입재법회

"고행이 있어도 바로 세우리"
사부대중 600명 운집해 서원
진우 스님, 기도 동참 당부해

경주 남산=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도 입재는 한국불교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며, 사회와 역사와 함께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은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불제자로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함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위한 한국불교 전체 원력 결집이 시작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4월 28일 경주 열암곡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입재법회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 자문위원장 옹산 법등 대종사, 불국사 회주 대궁 종상 대종사, 불국사승가대학원장 일해 덕민 대종사, 은해사 회주 송천 돈명 대종사, 봉정사 회주 호성 스님과 능종(동화사)·장명(직지사)·덕조(은해사)·종천(불국사)·혜일(해인사)·보운(범어사)·현덕(통도사)·등운(고운사) 스님 등 경상 지역 8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석기 경주시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운집했다.

진우 스님은 입재사를 통해 마애불 입불을 위한 사부대중 원력 동참을 당부했다.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은 불교중흥과 국민행복의 새로운 천년을 이루겠다는 서원의 출발"이라고 밝힌 진우 스님은 1000일 기도 의미에 대해 "자기 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지나온 삶에 대한 참회이자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과 함께하겠다는 발원"이라며 "어떠한 난행고행이 따르더라도 엎드려 계신 부처님을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바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간절한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기도정진력에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다 함께 수희동참해달라"고 불자와 국민에게 요청했다.

법등 대종사와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등 내외빈들은 부처님을 바로모시는 1000일 기도 입재를 축하했다. 법등 대종사는 축사를 통해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는 불사의 참 뜻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를 잇는 생명줄이요, 전통문화를 바로 세우는 종도들의 책무"라며 "사부대중이 너나없이 동참해 신심깊은 원력으로, 우리의 미래불교를 세운다는 역사적 사명감과 일체중생의 이고득락을 함께 발원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능종 스님은 축사에서 "이 같은 대작불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주 인근의 교구본사들이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구장스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지됐던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겠다고 서원했다. 사부대중은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불사"라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천일기도는 발원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치열한 수행정진으로 다함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입재법회에서는 열암곡 기도법사 단장과 법사가 위촉됐다. 진우 스님은 기도법사 단장 환풍 스님, 기도법사 선우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28일 경주 열암곡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국보 '수마노탑등' 광화문 불 밝히다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봉축 장엄등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불을 밝혔다. 광화문 광장에 점등된 장엄등은 5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서울시민들에게 전한다.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진우)는 4월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올해 광화문광장을 한 달여 간 빛낼 봉축장엄등은 지난 2020년 국보로 지정된 강원도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형상화했다. 크기는 가로 11m 세로 11m, 높이 20m(탑 18m, 좌대 2m)로 국적, 인종, 연령의 차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수마노탑을 탑돌이를 하며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직영 아미타요양병원 5월 3일 문 연다

사부대중 500여명 동참 예정
5년간 매년 5억 원 운영지원
비구니 스님 간호 인력 투입
대종사 등 후원 동참 이어져

조계종 직영 승려 전문 아미타요양병원이 5월 3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호산, 조계종 총무부장)는 4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승려전문 아미타요양병원 개원식과 함께 운영방침 등을 발표했다.

5월 3일 오후 2시 개최될 개원식에는 사부대중 500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개원식은 불교의례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법인 명예 이사장 자승 스님 치사,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봉행사,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공로패 수여, 칠장사 합창단의 축가가 준비됐다.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의 축하말씀도 이어진다. 이어 후원금 전달과 감사패 수여, 떡케이크 절단 및 나눔식으로 마무리된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올해 3~4월 1차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4층에 스님 전용 병실 10개와 휴식 공원을 조성했다. 스님들이 고급스럽고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4년부터는 건물 2~3층 일반병동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해 승려 전문요양병원으로 명실상부 제 모습을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승려복지회장 호산 스님은 "병원 수익보다는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면서 "추후 임종에 따른 다비식 등 장례문화 개선책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관심과 봉사, 후원이 이어져야 한다"며 "제37대 총무원 집행부는 각계각층의 정성으로 이뤄낸 병원이 스님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전문요양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는 조계종 스님들이 우선 입원할 수 있다. 기반이 잡히면 이웃 종단 소속 스님과 재가불자들도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진으로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비구니 스님 1명을 영입한 상태며 추후 스님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 의료인력을 충원, 돌봄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 최근 병원불자연합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한 상태다.

조계종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조계종이 처음 직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만큼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승려복지회에서 5년간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특히 80평 상 규모의 제 2병동도 추가 건립, 265병상 규모의 병원을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원식을 앞두고 사부대중은 요양병원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정우 스님, 성운 스님, 돈명 스님 등 올해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이 요양병원을 위해 정성을 모으고 있으며 포교원장 범해 스님, 불교신문사 사장 삼조 스님, 김정훈 페데스탈 대표, 사찰 주지 스님과 단체 및 신도들이 소중한 후원금을 전달했고 전기운반차, 쌀, 생수 등 물품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의 모태는 2008년 각현 스님이 개원한 파라밀요양병원이다. 2018년 삼천사 성운 스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전문요양병원으로 발전했고,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종단 직영 요양병원에 대한 관심과 결단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운영 계획에 나섰다.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려복지와 요양병원에 대한 원력이 실현되면서 마침내 아마타불교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다.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2만 6363m² (7975평), 건물 8492m² (2569평)로 지하 1층, 지하 6층 규모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사 령

명)총괄부국장 **박 재 완**
2023년 4월 25일 부
이상 1명

